

초등학생 때 독서 습관이 중학생 때의 독서 행동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 of Reading Habit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Reading Behavior in Middle School Students

한다혜¹ · 이국희^{2†}

Dahye Han¹ · Guk-Hee Lee^{2†}

Abstract

Because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of reading activities for growing children is so great, the importance of reading cannot be overemphasized. While the reading volum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Korea is very high, as they go up to middle school, the reading volume falls rapidly. This study examined a more effective way to resolve this middle school reduction in reading volume. Middle school freshmen were surveyed on their reading habits and preferences in the six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after which the group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based on their averages; groups with high/low reading habits and groups with high/low reading preferences). Participants also wrote reading reports for six weeks, kept a record of the days of the week they read for more than 20 minutes, and noted down the time they read in minutes. It was found that 75% of participants did not read one book a week when in the six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and it was confirmed that reading many books and liking to read were elements that had different dimensions. For example, about 35% of the participants said they liked books but rarely read them.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reading habits formed in elementary school were a strong variable that affected the number of days that and the reading time of middle school students rather than the reading preferences formed in elementary school. This study concluded that a subjective attitude toward reading and actually reading were completely different problems, which suggested that 'habits' could have a greater influence than 'preferences' when performing tasks to achieve goals.

Key words: Reading activity, Reading attitude, Reading education, Reading habits, Preferences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 시기의 독서선호도와 독서습관이 중학생의 독서 행동에 각각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확인함으로써 학년이 올라감에 따른 독서량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독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이를 위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초등학교 6학년 시절의 독서습관과 독서선호도를 조사한 후, 평균값을 기준으로 집단을 나누었다. 또한 참가자들은 6주 동안 매주 1회 독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20분 이상 독서한 날 수와 독서 시간을 분 단위로 응답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참가자의 초등학교 6학년 시절 75% 이상이 일주일에 1권의 책을 보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책을 많이 읽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참가자들 중 책을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책을 거의 읽지 않는 사람이 약 35%를 차지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초등학생 시기에 형성된 독서 선호도보다 독서 습관이 중학생의 독서한 날수와 독서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더 강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즉, 초등학생 때 독서 습관이 높은 수준으로 형성된 중학생은 중학생이 돼서도

¹ 한다혜: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2†} (교신저자) 이국희: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 E-mail : leegh1983@gmail.com / TEL : 031-249-1494

책을 자주 읽고 독서에 더 오랜 시간 집중하지만, 독서 습관이 낮은 수준으로 형성된 경우 중학생이 돼서도 책을 읽지 않는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독서에 대한 주관적 태도와 실제로 책을 읽는 행동은 전혀 다른 문제임을 보여준다.

주제어: 독서활동, 독서습관, 독서태도, 선호, 독서교육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독서는 아이들의 문해력과 어휘력을 증진시키고, 상상력, 사고력, 추론능력 등 인지 발달을 통해 지식을 축적하고 사고의 범주를 확장시킴으로서 폭넓은 이해와 판단을 가능케하며, 내적 성숙과 정서적 안정 및 도덕성 발달에 기여하는 것으로 많은 연구들을 통해 밝혀져 왔다(Kozak & Recchia, 2019; Noble et al., 2019; Dowdall et al., 2020). 이처럼 독서활동이 갖는 교육적 의의로 미루어볼 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독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성인 독서량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바 있다.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도로 수행된 해외 주요국 독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성인 평균 독서율은 74.4%로, OECD 회원국 성인 평균 독서율인 76.5%보다 다소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한국 학생들의 독서 실태는 어떠한가? 최근 실시된 2019 국민독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연간 독서량(종이책+전자책)은 38.8권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독서량은 79.3권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의 독서량은 25.3권, 고등학생의 독서량은 12.2권에 불과했다. 이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독서량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급격히 저하한다는 기존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다(Han, 1998; Park, 2006; Lee, 2006).

함께 조사된 학생들의 독서장애요인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사교육으로 인해 책을 읽을 시간이 없거나(27.6%), 책 읽기가 싫고 습관이 형성되지 않아서(22.0%) 독서량이 감소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주요 교과목 위주의 사교육시간이 증가해 독서시간이 부족해지거나, 독서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독서선호도가 낮거나 독서습관

이 제대로 자리잡지 않아 독서량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 퀴즈대회,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 독서 동아리 참여, 독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독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 그 효과에 대한 논의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초등학생·중학생의 독서 활성화 방안의 이정표를 제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해보았다. 중학교 학생의 독서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들의 초등학교 시절 아이들로 하여금 독서를 좋아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까? 아니면, 독서를 많이 하여 이를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까? 즉, 본 연구에서는 독서를 좋아하는 정도인 ‘독서선호도’와 독서를 평소 많이 읽는 정도인 ‘독서습관’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 두 가지 요인에 주목한 이유는 기존 독서교육의 목표가 독서 흥미유발과 지속적인 독서습관 형성을 통해 독서를 증진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독서흥미유발을 통해 독서 선호도를 증진시키고, 지속적인 독서습관을 형성함으로써 독서량을 높이는 것이 독서교육의 기본 목표이기 때문이다(Kim, 2006; Park, 2007).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독서 선호도와 독서 습관에 주목하였다. 앞선 질문으로 돌아가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에서 형성된 독서 선호도와 독서 습관이 중학생이 되고 나서의 독서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게 된다면, 앞서 서술된 학년이 올라감에 따른 독서량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독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독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이미 이루어진바 있다. 그러나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존 선행연구들은 많은 경우, 학교나 가정에서

실시하는 독서 프로그램, 독서수업 등과 같은 교육적 맥락에서 다루어졌다. 예를 들어,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독서치료, 독서상담, 집단 독서요법 등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Lee, 1995; Hoang, 2001; Park, 2007; Jun et al., 2010; Heo & Cho, 2019)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는 등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Kim & Kim, 2008; Oh & Lee, 2009; Heo & Cho, 2019; Lee & Kim, 2020).

이러한 기존 선행연구들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으며 교사나 교육행정가에게 도움이 되는 보다 실질적인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큰 의의가 있으나, 다루는 변인이 교실·가정환경이나 교사·부모와의 상호작용, 독서환경의 변화 등 거시적이고 환경적인 맥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학생 한 명 한 명 개개인의 내재적 독서습관이나 독서선호도, 독서행동 간의 미시적인 관계를 파악하기에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초등학생 및 중학생들의 독서부진 요인은 환경적 맥락 이외에도 책을 읽고자 하는 마음과 책을 읽는 습관 등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는 국민독서실태조사의 조사결과가 있으므로 개인적 맥락 역시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Park, 2008). 즉, 독서 교육에 있어 학생들이 책읽기를 좋아하고 자발적으로 독서할 수 있도록 내재적 독서 동기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거시적 관점이 아닌 개인적인 관점의 실증 연구 역시 매우 필요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Lee, 2006).

둘째, 기존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독서교육의 주된 흐름은 독서 자체를 즐기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올바른 독서습관을 형성하고 자주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책을 골라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밝혀져 왔다(Kim, 2006; Park, 2007). 즉, 독서교육에서는 독서 흥미유발과 지속적인 독서습관 형성을 통해 독서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독서 선호도, 독서습관, 독서량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다. 기존 선행연구들을 통해 독서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요인들을 고찰한 Lee(2006)의 리뷰 연구에서도 독서 동기나 몰입과 관련된 다양한 개인의 행동적 징후들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성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셋째, 국내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독서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

고 있다(Han, 1998; Park, 2006; Lee, 2006). 그러나 이러한 시간의 변화에 따른 독서량 급감의 문제점이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특정한 하나의 시점에서의 독서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만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물론 기존 선행연구 중에서 거시 데이터를 사용한 소수의 실증적인 종단연구가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Park(2008)의 연구에서는 한국교육종단연구 자료를 사용하여 중학교 1학년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3년간의 중학생의 독서태도, 독서습관, 독서시간과 국어성취도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았으며, Kim(2014)은 같은 자료를 사용하여 중학교 2학년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3년간의 학생들의 성취목표 지향성과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독서 선호도와 독서 습관 등 독서 관련 변인이 독서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살펴본 실증적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특히 앞서 제시한대로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독서량은 79.3권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독서량은 25.3권으로 급격히 감소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간의 시간적 변화에 따른 독서 관련 변인과 독서량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내용 측면과 연구방법 측면에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했다. 먼저, 본 연구는 연구내용 측면에서 나타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개인적 맥락에서 개인의 독서 관련 변수가 독서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둘째로, 독서 흥미유발과 지속적인 독서습관 형성을 통해 독서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독서교육의 목표에 따라 개인의 독서 관련 변수를 ‘독서선호도’와 ‘독서습관’으로 정하고, 이러한 독서 관련 변수가 독서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중학교 학교급 간의 독서 관련 변화를 파악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연구방법적 측면에서 나타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기존 선행연구들과 차별화를 위하여 연구를 설계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초등학교 6학년 시절의 독서 선호도와 독서 습관을 회상하게 하고, 이들이 중학생이 된 후의 독서행동에 각각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확인함으

로써 초등학교와 중학교 간의 학교급 변화로 인한 독서량 급감의 문제점에 대해 파악해보고자 했다. 나아가 초등학생이 중학생으로 올라가는 시점에서 급격히 떨어지는 독서량에 대한 문제점을 타개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우리나라 학생들의 독서량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독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초등학교 6학년 시절의 독서습관과 독서선호도는 어떠한가?

둘째, 초등학교 6학년 시절 독서습관과 독서선호도가 중학교 1학년의 독서한 날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셋째, 초등학교 6학년 시절 독서습관과 독서선호도가 중학교 1학년의 독서시간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1.2. 현 연구 개관

현 연구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가장 최근에 초등학교를 경험함으로써 초등학생 시기의 독서습관에 대한 비교적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중학교 1학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초등학생 때 형성된 독서 습관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현재 중학교 1학년인 학생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책을 몇 권이나 읽었는지 조사하였고, 이 응답 평균을 기준으로 하여 책을 평균보다 많이 읽은 집단은 높은 수준으로 독서 습관이 형성된 집단으로, 평균보다 적게 읽은 집단은 낮은 수준으로 독서 습관이 형성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아울러 초등학교 6학년 시절 책을 읽는 권수로 조작적 정의된 독서 습관과 같은 시기의 독서 선호도(독서를 좋아하는 것)는 다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초등학생 시기의 독서 선호도를 7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이 점수가 평균보다 높은 집단은 독서 선호도가 높은 집단으로, 낮은 집단은 독서 선호도가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초등학생 시기에 형성된 독서 습관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 독서 행동에 미치는 효과가 더 강한지, 아니면 초등학생 시기까지 책을 좋아했던 것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 독서 행동에 미치는 효과가 더 강한지 비교해보기 위함이다.

현 연구는 독서 습관과 선호도가 독서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현 연구에서는 독서

행동을 ‘독서한 날의 수’와 ‘독서 시간’이라는 두 가지 변수로 나누어 측정했다. 먼저 독서한 날의 수는 연구기간인 6주 동안 하루 20분 이상 독서한 날의 수로 측정되었다. 이는 독서 습관과 선호도가 지속적인 독서 활동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연구 기간인 6주 동안 책을 읽은 총 시간을 측정하였다. 이는 독서 습관과 선호도가 하루 생활 중 독서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을 미친 효과를 탐색하기 위함이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2.1. 참가자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때의 독서 습관 2 (낮음 vs. 높음) × 독서 선호 2(낮음 vs. 높음)가 중학교 1학년 때의 독서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참가자간 요인설계(between-subjects design)를 채택하였다. 연구를 위해 보편적인 생활수준을 보이고 있는 경기도 중소도시에 위치한 같은 지역 중학교 1학년 학생 428명(남 323, 여 85)이 참여하였다. 표집 관계상 참가자 중 남학생의 비중이 다소 많았으나, 독서관련 연구들에서 성별의 차이는 일반화된 결과가 부재한 실정이었기에(Mullis & Jenkins, 1990; Park, 2008), 본 연구에서는 성별이 아닌 학년의 차이에 따른 독서량의 변화에 집중하였다. 참여 학생들의 국적은 모두 한국인이었고, 모국어는 한국어였다.

2.2. 절차 및 측정방법

연구 시작 단계에서 참가자들은 간단한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초등학교 6학년 때를 기억하며 그 때의 독서습관과 독서선호도를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 책을 몇 권 읽었는지(독서 습관)와 책을 얼마나 좋아했는지(독서 선호도)에 응답하였다. 6학년 때 책을 읽은 수는 ‘0’ 이상의 정수로 응답하였고, 독서 선호도는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다(Kim, 2020).

설문조사를 마친 후, 참가자들은 6주에 걸쳐 주당 1회 작성할 독서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참가자들은 매주 1회씩 총 6회 독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월

요일에 연구를 시작한 학생들은 매주 월요일, 화요일에 연구를 시작한 학생들은 매주 화요일에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다른 요일에 시작한 학생들도 그 해당 요일마다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6주에 걸쳐 매주 작성한 독서 보고서에는 두 가지 사항을 기재하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첫째는 ‘독서한 날 수(day)’로, ‘지난 주에 하루 20분 이상 책을 읽은 요일’로 측정되었다. 이는 하루에 10분 이내로 아주 짧게 독서한 날은 ‘독서한 날’로 측정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으며 유의미하게 독서를 실시한 날만 ‘독서한 날 수’로 측정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실제로 하루 20분 이상 독서를 하는 것이 중요함을 선행 연구자들이 밝히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Schwartz, 1995). 둘째는 ‘독서 시간(minutes)’으로, 실제로 몇 분을 읽었는지 분(minutes) 단위 기록하게 하여 측정되었다. 독서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에는 약 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구체적인 측정 방법은 아래의 표로 정리하였다.

Table 1. How to measure variables

variable	How to measure
Reading habit	Ask respondents to recall their 6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and then respond to the question ‘How many books did you read in elementary school?’ with an integer of ‘zero’ or higher.
Reading preference	Ask respondents to recall their 6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and then respond to the question ‘How much did you like books when you were in 6th grade?’ on a 7-point scale (1: not at all, 7: very much so).
The day of reading	The number of days read more than 20 minutes a day in response to a reading report.
Time to read	The number of minutes to read a book during the day that you responded to the reading report.

3. 연구 결과 및 논의

3.1. 초등학교 6학년 때의 독서습관과 선호도

분석을 위해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독서 습관이 높게 형성된 집단과 낮게 형성된 집단 그리고 독서 선호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구분하였다. 먼저 독서 습관은 초등학교 6학년 때의 독서량이 표본 평균보다 높은지 낮은지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표본 집단의 독서량 평균은 28.32권($SD = 59.80$)이었고, 이 평균보다

많이 읽은 집단은 독서 습관이 높게 형성된 집단으로, 이 평균보다 적게 읽은 집단은 독서 습관이 낮게 형성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결과적으로 독서 습관이 낮게 형성된 집단은 321명, 높게 형성된 집단은 107명이었다.

다음으로 독서 선호도는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독서 선호도가 표본 평균보다 높은지 낮은지로 구분하였다. 확인 결과 표본 집단의 독서 선호도 평균은 3.68($SD = 1.70$)이었고, 이 평균보다 응답치가 높은 집단은 독서 선호도가 높은 집단으로, 이 평균보다 응답치가 낮은 집단은 독서 선호도가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결과적으로 독서 선호도가 낮은 집단은 188명, 높은 집단은 240명이었다.

이러한 집단 구분 결과는 몇 가지 함의를 가진다. 먼저 본 연구의 참가자들이 초등학교 6학년 시절 평균적으로 한해에 28권 정도의 책을 읽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달에 2·3권, (한 달을 4주로 할 경우) 한 주에 0.6권(반 권), 하루에 0.09권의 책을 보았음을 시사한다. 이는 만약 책이 100페이지라면, 9페이지 밖에 읽지 않는다는 뜻이고, 50페이지라면, 하루에 5페이지를 읽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이를 통해 추론해보건대, 본 연구의 참가자들이 초등학교 6학년 시절 대부분 책을 거의 읽지 않았으며, 독서 습관이 낮은 수준으로 정립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참가자 428명 중 평균보다 독서 습관이 높게 형성된 집단의 수가 107명(25%)이고, 낮게 형성된 집단의 수가 321명(75%)이며,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사실도, 본 연구의 참가자의 75%가 초등학교 6학년 시절 낮은 수준의 독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책을 거의 읽지 않았다는 추론을 지지한다($t(1) = 107.000, p < .001$).

또한 참가자들의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독서 선호도가 평균 3.68로 7점 척도의 중앙치인 4점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평균값과 숫자 ‘4’와의 차이를 비교하는 단일표본 t-검증 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427) = 3.943, p < .001$). 이는 본 연구의 참가자들의 초등학교 6학년 시절 독서 선호도가 전반적으로 낮음을 보여준다. 더하여 본 연구는 책을 많이 읽는 것(독서 습관)과 독서를 좋아하는 것(독서 선호도)은 전혀 다른 개념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네 집단을 비교하였는데, 한 집단은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책을 적게 읽었지만, 독서를 선호하지 않았던 집단으로

로 172명의 참가자가 여기에 해당되었다. 다른 집단은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책을 적게 읽었지만, 독서를 선호했던 집단으로 149명의 참가자가 여기에 해당되었다. 또 다른 집단은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책을 많이 읽었지만, 독서를 선호하지 않았던 집단으로 16명이 여기에 해당되었고, 마지막 집단은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책을 많이 읽었으면서, 독서를 선호했던 집단으로 91명이 여기에 해당되었다. 그리고 네 집단에 대한 Pearson의 카이제곱 검증 결과 네 집단의 인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chi(1) = 48.618, p < .001$). 이는 책을 많이 읽더라도 독서를 싫어할 수 있고, 책을 적게 읽더라도 좋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전자의 경우가 후자의 경우보다 드물다. 즉 독서를 좋아하지만, 실제로 적게 읽는 사람은 많은 것에 비해, 책을 많이 읽으면서 독서를 싫어하는 사람은 찾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3.2. 초등학교 6학년 때의 독서습관 및 선호도가 중학교 1학년의 독서한 날에 미치는 효과

초등학교 6학년 때의 독서 습관 2 (낮음 vs. 높음) × 독서 선호도 2 (낮음 vs. 높음)가 중학교 1학년의 연구 기간 중 하루 20분 이상 독서한 날수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의 독서 습관이 낮게 형성된 집단($M = 1.48$ 일, $SD = 2.64$)보다 높게 형성된 집단($M = 7.61$ 일, $SD = 7.64$)이 중학교 1학년 때 하루 20분 이상 독서한 날이 많았으며, 이를 통해 독서 습관의 주효과가 나타났음을 확인했다($F(1, 426) = 45.896, p < .001$). 또한 초등학교 6학년 때의 독서 선호도가 낮은 집단($M = 1.14$ 일, $SD = 2.56$)보다 높은 집단($M = 4.47$ 일, $SD = 6.14$)이 중학교 1학년 때 하루 20분 이상 독서한 날이 많았으며, 이를 통해 독서 선호도의 주효과도 관찰되었다($F(1, 426) = 24.407, p < .001$).

다음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의 독서 습관과 독서 선호도의 이원상호작용이 중학교 1학년 때의 독서한 날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F(1, 424) = 9.876, p = .002$). 위의 그림 1은 이 상호작용 효과를 보여준다. 먼저 초등학교 6학년 때의 독서 습관이 낮은 수준일 경우, 독서 선호도가 낮은 집단($M = .95$ 일, $SD = 2.31; N = 172$)보다 높은 집단($M = 2.09$ 일, $SD = 2.84; N = 149$)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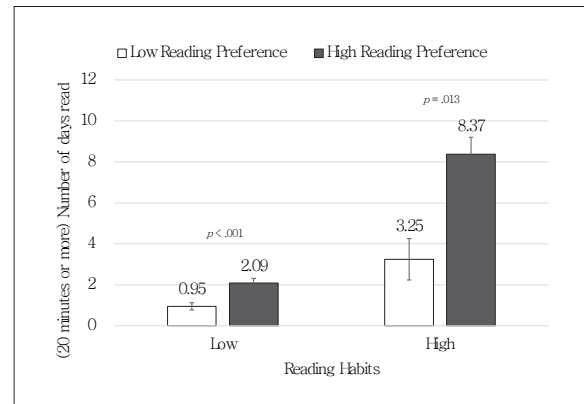


Fig. 1. The effect of the interaction of reading habits and preferences on the number of days read

중학교 1학년 때의 독서한 날수가 유의하게 많았지만 ($t(319) = 3.968, p < .001$), 그 차이는 하루에 불과했다. 다른 말로 하면, 초등학교 6학년 때의 독서 습관이 낮은 집단은 독서 선호도가 높던 낮은, 중학교 1학년 때 6주 동안 하루 20분 이상 독서한 날이 2일 이하였다. 그러나 초등학교 6학년 때의 독서 습관이 높은 수준일 경우, 독서 선호도가 낮은 집단($M = 3.25$ 일, $SD = 4.03; N = 16$)보다 높은 집단($M = 8.37$ 일, $SD = 7.78; N = 91$)이 중학교 1학년 때 독서한 날수가 유의하게 많았고, 그 차이는 5일이었다($t(105) = 2.538, p = .013$).

이는 초등학교 6학년 때의 독서 선호도가 중학교 1학년 때의 하루 20분 이상 책을 읽는 날의 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6학년 때의 독서 습관이 높게 형성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이 결과는 독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한 주관적 보고보다 실제로 책을 많이 읽으면서 독서 습관을 높은 수준으로 형성했는지가 하루 20분 이상 독서하는 날을 예측할 수 있는 더 나은 변수임을 시사한다.

독서 습관과 독서 선호도가 하루 20분 이상 독서한 날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수행한 Cohen's d 분석도 이러한 해석을 지지한다. 구체적으로 독서 습관의 Cohen's d는 1.07로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고(Cohen's d 값이 1.0 이상이면 매우 큰 것으로 해석), 독서 선호도의 Cohen's d는 .71로 보통의 효과(Cohen's d 값이 0.5 이상 0.8 이하면 보통으로 해석)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ohen, 1988; 1992; Sawilowsky, 2009). 정리하면, 초등학교 6학년 때의 독서 습관과 독서 선호도 중 중학교 1학년 때의 하루 20분 이상 책을 읽는

것에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독서 습관’이다.

3.3. 초등학교 6학년 때의 독서습관 및 선호도가 중학교 1학년의 독서시간에 미치는 효과

초등학교 6학년 때의 독서 습관 2 (낮음 vs. 높음) × 독서 선호도 2 (낮음 vs. 높음)가 중학교 1학년의 연구 기간 중 독서 시간(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 독서 습관이 낮게 형성된 집단($M = 109.08$ 분, $SD = 258.48$)보다 높게 형성된 집단($M = 564.98$ 분, $SD = 645.19$)이 중학교 1학년 때 독서 시간이 길었으며, 이를 통해 독서 습관의 주효과가 나타났다($F(1, 426) = 37.308, p < .001$). 또한 초등학교 6학년 때의 독서 선호도가 낮은 집단($M = 93.85$ 분, $SD = 270.17$)보다 높은 집단($M = 324.28$ 분, $SD = 513.16$)이 중학교 1학년 때의 독서 시간이 더 길었으며, 이를 통해 독서 선호도의 주효과도 관찰되었다($F(1, 426) = 11.008, p = .001$).

다음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의 독서 습관과 독서 선호도의 이원상호작용이 중학교 1학년 때의 독서 시간(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F(1, 424) = 3.939, p = .048$). 아래의 그림 2는 이 상호작용 효과를 보여준다. 먼저 초등학교 6학년 때의 독서 습관이 낮은 집단의 경우, 독서 선호도가 낮은 집단($M = 73.88$ 분, $SD = 250.81; N = 172$)보다 높은 집단($M = 149.72$ 분, $SD = 262.06; N = 149$)이 독서 시간이 유의하게 길었다($t(319) = 2.646, p = .009$). 반면, 초등학교 6학년 때의 독서 습관이 높은 수준일때는 독서 선호도가 낮은 집단($M = 308.44$ 분, $SD = 373.08; N = 16$)과 높은 집단($M = 610.09$ 분, $SD = 673.29; N = 91$) 간의 차이가 300분이었으나 유의하지 않은 차이로 나타났다($t(105) = 1.741, p = .085$).

즉, 초등학교 6학년 때의 독서습관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면 초등학교 6학년 때의 독서선호도가 낮더라도 중학교 1학년 때 주당 50분(308분/6주) 정도 독서에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초등학교 6학년 때 독서 습관이 높았던 집단의 참가자들은 그 당시 독서선호도가 낮던 높던 현재 중학교 1학년 때에 긴 독서시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학생의 독서에 집중하는 실질적인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초

등학생 시기의 독서 습관(책을 많이 읽는 것)이 높게 형성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이 결과는 독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한 주관적 보고보다 실제로 책을 많이 읽으면서 독서 습관을 높은 수준으로 형성했는지가 책에 집중하는 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 더 나은 변수임을 시사한다.

독서 습관과 독서 선호도가 하루 독서 시간(분)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수행한 Cohen’s d 분석도 이러한 해석을 지지한다. 구체적으로 독서 습관의 Cohen’s d는 0.93으로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Cohen’s d 값이 1.0 수준이면 매우 큰 것으로 해석), 독서 선호도의 Cohen’s d는 .56로 보통의 효과(Cohen’s d 값이 0.5 이상 0.8 이하면 보통으로 해석)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ohen, 1988; 1992; Sawilowsky, 2009). 정리하면, 독서 습관과 독서 선호도 중 독서에 더 오랜 시간 집중하게 만드는 것에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독서 습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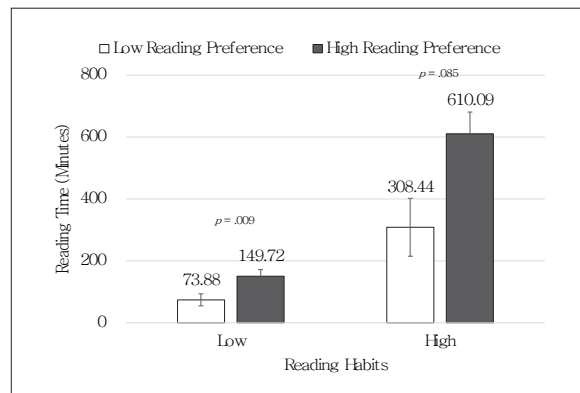


Fig. 2. The effect of the interaction between reading habits and preferences on reading time (minutes)

4. 결론 및 논의

4.1. 결과 요약

본 연구는 초등학생 때까지의 독서 습관과 독서 선호도가 중학생이 된 후, 매일 20분 이상 독서하는 날의 수와 독서에 집중하는 시간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를 조사하였으며, 표본 집단 평균

보다 책을 많이 읽은 집단은 독서 습관이 높게 형성된 집단으로 평균보다 책을 적게 읽은 집단은 독서 습관이 적게 형성된 집단이라고 조작적 정의하였다. 더하여 표본 집단이 초등학교 6학년 때 까지 독서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조사한 후, 평균보다 높은 점수로 응답한 집단은 독서 선호도가 높은 집단으로, 낮은 점수로 응답한 집단은 독서 선호도가 낮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참가자들은 6주 동안 매주 1회 독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20분 이상 책을 읽은 요일에 체크하였고, 책 읽은 시간을 분 단위로 응답하였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중요한 결과를 관찰하였다. 첫째, 참가자의 초등학교 6학년 시기를 회상한 결과 참가자들의 75% 이상이 일주일에 1권의 책을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초등학교들을 위한 도서가 많은 경우 30페이지 내외의 동화책이고, 분량이 많지 않음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적은 수준의 독서량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책을 많이 읽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즉 본 연구는 책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책을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책을 거의 읽지 않는 사람이 있음을 관찰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때에 형성된 독서 선호도보다 독서 습관이 중학교 1학년의 독서한 날수와 독서 시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초등학교 때 책을 많이 읽으면서 독서 습관이 높은 수준으로 형성된 중학생은 중학생이 되어서도 책을 자주 읽고(20분 이상 책을 읽은 날이 많고), 독서에 더 오랜 시간 집중할 수 있음(독서 시간이 더 김)을 확인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때의 독서 습관이 낮게 형성된 집단은 독서 선호도에 따라 중학교 1학년 때의 독서한 날수 평균 차이가 작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 독서 습관이 높게 형성된 집단은 독서 선호도에 따라 중학교 1학년 때의 독서한 날수 평균 차이가 커지는 독서 습관과 독서 선호도의 이원상호작용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6학년 때 독서 습관이 낮게 형성된 집단은 독서선호도의 낮고 높음에 따라 중학교 1학년 때의 독서 시간 평균의 차이가 유의하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 독서 습관이 높게 형성된 집단은 독서선호도의 낮고 높음에 따라 중학교 1학년 때의 독서 시간 평균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즉, 전반적으로 중학교 1학년 때의 독서한 날수와 독서시간을 모두 살펴

보면, 초등학교 6학년 때의 독서습관이 높은 수준일 때는 독서선호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중학교 1학년 때의 독서한 날수와 독서시간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2. 시사점

초등학생 시기의 독서는 이 시기 아이들의 문해력(문맥에서 단어의 뜻을 파악하는 능력)과 어휘력(가용한 단어의 수)을 증진시키고, 상상력, 사고력, 추론능력, 공감능력 등의 인지 발달과 도덕성 발달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ozak & Recchia, 2019; Noble et al., 2019; Dowdall et al., 2020). 그러나 본 연구는 한국의 초등학교생들의 75% 이상이 책을 충분히 읽고 있지 않다는 결과를 획득하였는데, 이는 청소년 시기와 성인기에 필요한 인지 능력, 도덕성, 문제해결 능력 등이 부족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다양한 고층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독서에 대한 주관적 태도와 실제로 책을 읽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임을 보여준다. 이는 본 연구 참가자의 35%(149명)가 독서를 좋아한다고 보고하지만,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에서도 드러나 있다. 문제는 또 있다. 바로 35%의 참가자들은 중학생이 된 현재, 하루 20분 이상 독서한 날의 수와 독서에 집중하는 시간 자체가 적다는 것이다. 반대로 초등학교 시기에 책을 많이 읽어서 독서 습관이 형성된 집단은 중학생이 된 현재, 전반적으로 독서한 날 수와 독서에 집중하는 시간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독서를 하게하고 싶다면, 초등학교 때 책을 많이 읽게 하는 것이 책을 좋아하게 하는 것보다 중요함을 시사한다. 나아가, 독서의 흥미를 유발에 목표를 둔 독서교육보다는 독서습관을 형성하는 데에 목표를 둔 독서교육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업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 습관의 영향이 선호의 영향보다 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어떤 목표를 이루는데 매일 같이 수행해야 하는 과업이 있는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한 사람은 그 과업을 매일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그 과업을 수행하면서 과업에 대한 습관을 형성했지만, 그 과업을 좋아하진 않는다. 다른 사람은 그 과업을 매우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그 과업에 대한 습관은 형성하지 않았다. 둘 중에 누가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을까? 독서 습관이 실제 독서 행동을 예측한

다는 것을 발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과업에 대한 습관을 형성한 사람이 그 과업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목표를 이를 가능성이 높음을 함의한다.

4.3. 한계와 향후 연구제안

본 연구는 다양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는 참가자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참가자의 기억에 의존하여 측정하였다. 기억에 의존한 측정임에도 불구하고, 평균보다 많이 읽었던 집단이 평균보다 적게 읽었던 집단보다 현재 책을 더 많이 읽는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참가자 기억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다. 또한 참가자들이 읽은 책이 어느 정도 분량인지는 묻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학생은 30페이지 분량의 동화책을 읽고 1권이라고 답했을 수도 있고, 다른 학생은 100페이지 분량의 소설을 읽고 1권이라고 답했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 참가자들이 과거에 어느 정도 책을 읽었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조사한 후,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얻는다면, 본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을 확장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참가자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책을 읽은 분량이 많은 집단을 독서 습관이 높은 수준인 집단으로, 책을 읽은 분량이 적은 집단을 독서 습관이 낮은 수준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즉 독서를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독서 분량 혹은 독서 생산성으로 습관을 측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의 습관을 한 사람이 어떤 과업의 결과물을 얼마나 많이 산출하는지 판단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어 보인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독서 시간을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다룬 것처럼 습관은 그 과업에 투입한 시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한 과업에 시간을 많이 쓰는 것과 생산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할 것이다. 과업에 많은 시간을 들였지만, 생산성이 낮을 수 있고, 적은 시간에도 높은 생산성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질문은 과업에 투입한 시간과 과업량 중 어느 것이 더 습관이라는 개념에 어울리는 조작적 정의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연구에서 이것이 밝혀진다면, 습관과 과업 수행, 습관과 목표 달성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이원분산분석을 통해 데이터를 분

석하고 연구결과를 서술하였다. 그러나 추후 연구에서는 독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외부변수들을 통제하고 나서도 독서 관련 변수가 독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인과관계를 확인함으로써 더욱 명확한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독서활동을 ‘종이책’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존 종이책 이외에도 전자책 활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와 관련 연구도 점차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Kwon & Suk, 2011; Park et al., 2015). 특히 기존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전자책은 기존 종이책에 비해 읽기가 더 편리하지만 콘텐츠에는 더 몰입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Kwon & Suk, 2011). 이처럼 전자책은 기존 종이책과 그 특성이 다르므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독서 습관과 독서선호도가 독서량에 미치는 효과 역시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를 통하여 전자책의 경우에는 독서습관과 독서선호도가 독서량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확인하는 등 전자책을 통한 독서량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Chung, S. M., Yu, H. K., & Jeong, Y. H. (2015). The development of a group counseling program by using bibliotherapy to improve anger-control abilitie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5*(3), 443-462.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J: Erlbaum. DOI: 10.4324/9780203771587
- Cohen, J. (1992). A power primer. *Psychological Bulletin, 112*(1), 155-159. DOI: 10.1037/0033-2909.112.1.155
- Dowdall, N., Melendez-Torres, G. J., Murray, L., Gardner, F., Hartford, L., & Cooper, P. J. (2020). Shared picture book reading interventions for child language development: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Child Development, 91*(2), e383-e399. DOI: 10.1111/cdev.13225
- Han, C. W. (1998). Reading books and becoming human: Why don't people read books?. *Journal of Reading Research, 3*, 155-182.
- Heo, J., & Cho, M. (2019). Development of bibliocounseling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 and analysis of the effect: Based on Adler's individual psycholog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0(3), 167-190.
- Hoang, G. S. (2001). A study on developing model for reading education program in public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5(2), 75-92.
- Jeon, B. (202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reading attitude test tool for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Reading Research*, 56, 247-277.
- Jun, C. A., Choi, J. H., & Hwang, M. K. (2010).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 parent-child reading interaction program.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8(1), 119-130.
- Kim, S. K. (2006). The true meaning of reading and operation of reading program.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7(3), 235-263.
- Kim, S., & Kim, S. (2008). A study on the bibliotherapy for developi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2), 213-226.
- Kim, Y. (2020). The effect of implementation intention for reading on the achievement of reading goals: Interaction with everyday reading preference. *Journal of Social Science*, 31(1), 191-206.
DOI : 10.16881/jss.2020.01.31.1.191
- Kozak, S., & Recchia, H. (2019). Reading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understanding: Implications for the literacy classroom. *The Reading Teacher*, 72(5), 569-577. DOI:10.1002/trtr.1760
- Kwon, H. S., & Suk, H. J. (2011). The effect of media attributes and contents on level of concentration when reading books. *Spring Conference of Korean Society for Emotion & Sensibility*, 2011, 29-30.
- Kwon, T. (2019). *A study on understanding about fictiveness of modern novel and reconstruction of time in modern novel*.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Lee, J. S. (1995).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rogram of reading guidance for in the elementary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 Lee, S. S., & Kim, H. G. (2020). A case study on the self-esteem and social chang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participating in reading programs using picture books. *The Journal of Education Studies*, 57(4), 50-74.
- Lee, S. Y. (2006). A theoretical review on the factors affecting motivation and engagement in reading. *Journal of Reading Research*, 16, 359-381.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9). 2019 National Reading Survey. 2020.03.11.
- Noble, C., Sala, G., Peter, M., Lingwood, J., Rowland, C., Gobet, F., & Pine, J. (2019). The impact of shared book reading on children's language skills: A meta-analysis. *Educational Research Review*, 100290. DOI: 10.1016/j.edurev.2019.100290
- Oh, I., & Lee, O. (2009). The effects of group bibliotherapy on the self-esteem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Counseling*, 8(1), 1-13.
- Park, H. (2008). A longitudinal study of the correlates among reading attitudes, reading behaviors, time spent on reading, and Korean reading achievements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39(3), 27-49.
- Park, H. Y. (2006). A Study on the Critique about Korean Reading Culture at Secondary school, 17th Spring Conference of Korean Reading.
- Park, M. (2007). The revitalization of public library reading through special quality service program developmen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8(1), 315-339.
- Park, Y., Lee, H.-M., & Lee, S.-H. (2015). Emotion research of paper-like e-ink e-book. *Korean Society for Emotion and Sensibility*, 18(4), 119-128.
DOI: 10.14695/kjsos.2015.18.4.119
- Sawilowsky, S. S. (2009). New effect size rules of thumb. *Journal of Modern Applied Statistical Methods*, 8(2), 597-599. DOI: 10.22237/jmasm/1257035100
- Schwartz, D. M. (1995). Ready, set, read ... 20 Minutes each day is all you'll need. *Smithsonian*, 25(11), 82-91.

원고접수: 2021.05.14

수정접수: 2021.06.28

게재확정: 2021.06.30